

아파트 청약 열풍에 경매시장도 ‘후끈’

광주 올 상반기 평균 낙찰가율 100% 넘어

운암주공 47㎡에 33명 몰려 1억3천만원 낙찰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광주지역 청약 열풍을 타고 올해 아파트 경매시장도 덩달아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에 기댄 투자 심리가 경매 시장까지 확대된 것이다.

1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의 5대 광역시 아파트 분기별 경매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 지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평균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10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이다. 평균 낙찰가율이 100%를 넘겼다는 것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아파트를 낙찰받는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지역 아파트의 올 평균 낙찰가율은 1분기 103.7%, 2분기 108.9%로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만에 10%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지난해 4분기 100.5%를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100%를 넘겼다. 지난 4월엔 주거 시설 낙찰가율이 107.9%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광주의 아파트 경매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응찰자 수가 30명을 넘긴 물건도 여러 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광주 경매시장에서는 감정가

8600만원에 나온 북구 운암동 운암주공의 전용면적 47㎡에 응찰자 33명이 몰려 1억3111만원(낙찰가율 152%)에 낙찰됐다. 또 4월 감정이 1억9800만원에 나온 광산구 장덕동 수원양우 내안에 전용면적 84㎡는 32명의 응찰자가 몰렸으며 2억5130만원(낙찰가율 127%)에 새 주인이 나왔다.

주거시설 경매에 경쟁이 붙으면서 토지의 낙찰가율도 덩달아 상승했다. 2월 106.9%, 3월 96.6%, 4월 76.5%로 비교적 높은 낙찰가율을 보였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상반기 광주 경매시장은 주거시설과 토지 모두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됐다”며 “주택공급이 원활함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일단 물건을 확보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광주U대회 삼성전자 체험관

1일 광주시 서구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에 문을 연 ‘삼성전자 체험관(Samsung Athletes Meet)’에서 전 세계 대학생 선수들이 다른 선수를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대회에서 ‘서로를 빛나게(You Light Me Up)’캠페인을 진행하며 경쟁을 넘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女超’ 광주는 심화·전남은 주춤

60세 이상 광주 18%, 전남 33%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이른바 ‘여초(女超) 현상’이 광주는 심화하는 반면 전남은 주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5년 광주·전남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여성인구는 76만3000명으로 총인구 151만 7000명의 50.3%에 달했다. 지난 2000년 여성이 남성을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15년 연속 여초 현상이다. 통계청은 현재 추세로라면 5년 뒤인 2020

년에는 여성 비율이 50.4%로 증가해 여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남은 1990년대 후반에 50%를 넘어선 이후 2010년에 50.7%까지 올랐으나 올해 여성 비율은 50.6%로 감소했다. 지속적인 감소가 이어질 경우 2020년에는 50.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연령대별로는 광주·전남 모두 ‘6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광주는 17.6%, 전남은 32.9%에 달했다. 여성 초혼 연령은 광주 29.9세, 전남 29.2세로 높아지는 추세고 외국인과의 혼인비율은 광주는 5.8% 전남은 8.6%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2013년 기준)은 광주·전남 모두 30대 초반이 가장 높고, 30~40대 초반 출산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광주가 50.4%로 남성(71.0%)보다 20.6%포인트 낮았고 전남 역시 52.8%로 남성보다 20.7%포인트 낮았다. 취업분야는 광주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전남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1위를 차지했다. 광주·전남 남녀 모두 ‘육아’를 여성 취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했다.

여성의 문화예술·스포츠 관람비율은 대도시인 광주는 71.4%, 이 중 영화관람이 86.4%로 가장 많았고, 농·산·어촌이 많은 전남은 관람비율은 45.1%에 그친 가운데 역사 영화관람이 82.0%로 가장 많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터민에 장학금·다문화가정에 도서 기증 ‘행복한 사회 만들기’

하나은행, 교육테마 사회공헌활동

어린이 대상 경제 뮤지컬 공연도

하나은행이 교육을 테마로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이바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미래를 위한 교육을 사회공헌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탈북 새터민,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2010년 새터민과 함께한 ‘어울림한 마당’의 후원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탈북 새터민 청소년과 대학생의 장학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탈북아동을 위한 ‘하나 어린이 경제뮤지컬 공연’을 진행 중이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2011년부터 꾸준히 시행돼온 프로젝트인 아시아지역 나눔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에 의류와 PC, 도서 등을 기증하고 있다. 지난 1월에 하나은행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미얀마 현지에서 파견돼 나눔 활동을 이어갔고, 미얀마 빈곤지역 학교에 PC교실과 도서실이 어우러진 교육복지 공간 ‘Hana Happy Class’를 설치해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처음 시작해 7년째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인 ‘하나 Kids of Asia’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다. 이 행사는 다문화 양국 어 병기 동화책 5만5000여권을 제작해 다문화가정에 무료로 배포하는 활동이다. 2011년 6월부터는 다문화센터 ‘다리’를 설립해 다문화가족과 내 외국인인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과 경제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와 요술지갑’ 공연 모습. <하나금융그룹 제공>

국내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교육사업도 진행 중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과 경제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와 요술 지갑’을 매년 40차례 이상 공연했으며, 청소년들에게 은행 영업점을 개방해 직업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노력도 성과를 내고 있다. 하나은행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모임인 하나사랑봉사단을 통해 장애우시설,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노사협의를 거쳐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금해 사회복지시설 10곳과 소외가정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100명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그룹의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의무로 생각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며 “단순한 기부가 아닌,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에 봉사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97.89 (+23.69)
- ▲ 코스닥 760.67 (+18.40)
- ▲ 금리 (국고채 3년) 1.81% (+0.01)
- ▲ 환율 (USD) 1117.50원 (+2.00)

UNIVERSIADE GWANGJU 2015

7.3.~7.14

전 세계 대학생 올림픽!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UNIVERSIADE GWANGJU 2015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모두 함께 응원합니다

동운로	김평호
비엔날레로	김강순
봉선로	오성자
비엔날레로	유향순
대천로	문기연
첨단중앙로	김은혜
치평로	진소연
서암대로	이상진
송정로	김연규
서하로	최인수
독립로	최선우
죽봉대로	박상우
광천로	정상현
치평로	조원호
하남로	김진만
금남로	이현영
첨단2로	박종락
서강로	배종효
봉선중앙로	최희숙
상무공원로	이성우